

설화 속 시혜적 성관계에 내포된 주체의 도덕적 불안과 감정의 구조화 문제

-〈權斯文避雨逢奇緣〉(『청구야담』),
〈丹巖閔公鎮遠〉(『계암만록』)을 중심으로-

홍나래*

<차례>

1. 서론
2. 도덕적 불안의 표상, '청상과부'
3. 소외자의 원망 해소에 대한 설화 공동체의 공모
4. 결론

〈국문초록〉

가부장 사회의 성정치가 강화되면서 혼인하지 못한 여성은 소외자의 대표적인 사례로 인식되어, 조선시대에는 그들의 한이 야기한다는 전염병, 흉어, 가뭄 등에 대한 해원이 구체적으로 관습화될 정도였다. 이처럼 화기를 상하게 하는 원녀(怨女)들의 존재는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을 공동체에 경고하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데, 『청구야담』 소재 〈권선비 이야기〉와 『계암만록』 소재 〈민진원 이야기〉는 조선후기 늘어만 가는 과부 특히 청상과부의 문제로 기득권이 느낀 도덕적 불안을 다루고 있다. 본고는 이들 작품을 중심으로 여성 욕망에 대한 이해 방식, 시혜적인 관계맺음의 의미, 도덕적 불안과 책임의 문제를 살폈다.

두 설화에서는 과부의 한을 여타 설화 속 원녀들의 욕망해소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했는데, 원녀들의 경우 남성과의 성관계를 통해 자신들의 다양한 사회적/정서적/육체적 욕망을 성취하며 존재의 전환을 이룰 수 있었지만, 제도와 규범에 막

* 건국대학교 박사후연구원

힌 청상의 경우에는 성관계 모티프가 삶을 보장하는 기제로 쉽게 작동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아담은 육체적 성관계의 필수불가결함과 쾌락의 지극함을 담론화하며 과부들의 욕망을 욕욕으로 축소시켰고, 이들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을 여인에게 성에 대한 앎과 쾌락을 증여한 시혜자로 보았다. 결국 과부의 원망을 덜어주고 화기를 온전히 하겠다는 아담 향유층은 사회적 갈등이나 부조리는 회피하되 시혜적 성관계를 통해 불우한 이들로부터 감사의 인사와 축복까지 받아내면서 자신들의 도덕적 불안을 해소하고자 했다.

이처럼 두 이야기는 소외자의 감정을 일방적으로 수렴하고 시혜와 보은의 구조로 조화로운 질서를 그리는 듯했지만, 필연적으로 귀결되는 여인들의 자살로 가부장 주체의 이념과 현실 사이에 발생한 균열을 드러낸다. 여인의 죽음을 목도한 가부장 주체의 경악 혹은 꺼림칙함은 그들만의 조화로운 세계에서 끝내 해석되지 못한 채 그 도덕성에 대해 의심의 여지를 남기고, 사회구조적 변화의 요청에 무기력했던 지배층이 소외자의 한과 감정을 구조화하며 지배관계를 공고히 하는 문화담론 생성에는 적극적이었음을 반성적으로 고찰하게 한다.

□ 시혜적 성관계, 도덕적 불안, 감정, 청구아담, 계압만록, 가부장, 여성, 보은, 욕망, 과부, 시간(屍姦)

1. 서론

『청구아담』 소재 <權斯文避雨逢奇緣>(이하 <권선비 이야기>)와 『계압만록』 소재 <丹巖閔公鎮遠>(이하 <민진원 이야기>)의 내용은 조선 후기 청상과부 여인과 인연을 맺은 한 남성의 이야기이다. 비록 단편이지만 여성의 성과 욕망에 대한 여타 설화나 현상들과 연동하면서 당대 불우의 상징인 청상과부에 대한 주변인의 고민이 담긴 내용이다.

<권선비 이야기>는 『해동야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이본으로 실려 있으며 청상과부가 남녀의 일을 알고자 선비를 가까이 청한다는 점에서 『계

압만록』의 <민진원 이야기>와 문제의식이 유사하다. 『양은천미』 <李上舍薄倖致坎壈>의 경우 여인이 첩으로 삼아달라고 요구하고, 구비설화 <남의 집 대 이어준 박문수>¹⁾의 여인은 아이를 갖고자 유혹하는 데에서 모티프의 변이를 찾아볼 수도 있다. 또한 이 모티프는 남녀의 결합에서 남성이 자신의 포용적 태도에 따라 복을 받거나 불운해진다는 여타 설화 유형들²⁾과 관련을 맺고 있다.

『청구야담』 소재 약 290편의 이야기 중³⁾ 과부가 주요 소재가 된 이야기는 18편 정도지만, 과부가 성실히 살며 집안을 일으킨 이야기 2편 외에⁴⁾ 대개 개가를 거부하고 정절을 지킨 이야기(7편)와 개가하여 잘 살게 된 이야기(8편)처럼 과부 개가·정절에 대한 문제의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정절을 지키거나 개가하는 것으로 결말을 맺는다.⁵⁾ 이에 반해 <권

-
- 1) 『한국구비문학대계』(이하 『대계』) 4-5, 819쪽. 청상과부가 선비를 유혹한 후 아이를 낳고 자결했다. 여인은 유복자로 보일 아이를 낳기 위함이었다. 씨내리를 해서라도 대를 잇는다는 여타 구비설화의 문제의식과도 착종된 것으로 보인다.
 - 2) 불우하거나 위기에 처한 여성과 관계를 맺은 남성이 보상을 받는 이야기들은 정태화가 거지소녀와 동침하고 복을 받았다거나 (『금계필담』<陽坡鄭相國太和>), 이희갑이 상사병으로 죽어간 여인을 염습하여 선산에 안장한 이야기(『양은천미』<李輔國題棺解女冤>) 등 다양하게 전승된다. 구비설화도 유사한데 <거지 여자와 하룻밤 자고 벼슬한 사람>(3-3, 102; 앞의 숫자는 『한국구비문학대계』 권호와 페이지 숫자임)이나 <문동병 처녀 낚게 한 총각>(6-8, 423) <처녀귀신과 결혼한 총각>(2-6, 221) 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남성이 박정하게 굴어 여인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 때문에 오히려 횡액을 당했다는 이야기들이 대비되어 나타난다. 『계서야담』<自謂其貞損人冤命>은 환관 처의 은근한 만남 요구를 폭로하여 자결케 한 선비가, 『양은천미』<李上舍薄倖致坎壈>에서는 청상과부의 요청을 화를 내며 거부한 선비가 실패한다. ‘상사뺨’이나 ‘신립장군과 원귀’에 대한 이야기는 문헌보다 구비로 더 활발히 전승되었다.
 - 3)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은 자료는 『청구야담』 上下, 김경진 편저, 김동욱·정명기 역, 교문사, 1996으로, 한글본 263편과 한문본 293편이 실려 있다.
 - 4) <掘銀瓮老寡成家>, <立墓石工匠感孝婦>의 경우이다. 단순히 과부가 등장인물로 나온 <得金缸兩夫人相讓>은 제외하였다.

선비 이야기>의 경우 개가리는 가족 관계 변화보다 청상과부의 성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절을 고수하지도 개가를 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여인이 자결한다. 여인이 선비의 은혜에 감사를 전하는 데에서는 보은담과 유사해 보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그녀를 둘러싼 인물들의 감정, 상호관계가 단순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권선비 이야기>와 <민진원 이야기>를 중심으로 성적 욕망과 인물들 간 행위에 보다 집중하여 여성 욕망에 대한 이해 방식, 시혜적인 관계맺음과 감정의 수렴, 도덕적 불안과 책임의 문제를 살피고자 한다. 청상과부의 한을 풀어 주는 소재는 사회구조적 모순과 한에 대하여 야담 향유층이 지닌 문제의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고, 시혜적인 상관계 모티프는 다른 설화들과 비교하며 논의를 심화·확장해 볼 수도 있다. 본고는 여성의 정욕이나 한에 대한 여타 야담 및 구비설화들을 참고하고 기존 연구들의 맥락을 이으면서도,⁶⁾ 개별 유형에 담긴 의미

- 5) 정절을 지키는 것을 긍정하거나 지키다가 비극적 결말을 맞는 이야기로 <守貞節崔孝婦感虎>, <李節婦從容取義>, <節婦當難辯高義>, <捉凶僧箕城伯話舊>, <訴輦路忠僕鳴冤>, <訪名卜冤獄得伸>, <改嫁女聞讀還歸>편이 있다. 개가하여 잘 살거나 훌륭한 자식을 낳은 이야기는 <信卜說湖儒探香>, <倡義兵賢母昴子>, <得二妾權上舍福緣>, <結芳緣二八娘子>, <畏嚴舅婢婦出矢言>, <逢奇緣貧士得二娘>, <憐孀女宰相囑窮弁>, <鰥班弄計卜隣寡>이다.
- 6) 설화에 나타난 여성의 성은 젠더적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지배·피지배 관계의 상징으로도 해석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설화의 지향이 여성의 욕망을 인간의 본성으로 긍정하는 것이라거나 위기에 몰린 여성의 처지에 대응하는 남성의 태도를 문제 삼은 것으로 보았다(강진옥, 『원혼설화의 담론적 성격 연구』, 『고전문학연구』 vol. 22, 2002; 신동훈, 『삶을 일깨우는 옛이야기의 힘』, 우리교육, 2012). 또한 성차와 계급의 분별이 명확한 사회이므로 욕망을 표현하고 인정받는 방식에 위계화 된 질서가 있어서 야담 속 여성들은 직접적인 고백이 불가능한 지점에서 남성의 폭력을 사랑으로 전환시킨다거나(최기숙, 『불멸의 존재론, ‘한’의 생명력과 ‘귀신’의 음성학』, 『열상고전연구』 제16집, 2002), 남편감을 찾아 성공시키거나 혹 회상의 방식 등 우회적으로 정욕을 표출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이강옥, 『야담에 나타나는 여성 정욕의 실현과 서술 방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vol.16, 2008) 분석되었다.

와 의의에 초점을 맞추어 문화담론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향유 집단의 문제의식과 그 균열의 지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2. 도덕적 불안의 표상, ‘청상과부’

착한 일을 행하면 언젠가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믿음은 선인들의 삶과 이야기를 관통하는 주제이다. 선을 행한 사람들이 그 답례로 복을 받게 된다는 생각은 그 역으로 복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에 대해 부채의식을 갖게도 한다.⁷⁾ 복이라는 것은 부·귀·자손이라고 하지만, 남성으로 태어난 것, 다른 사람의 위에 있는 것 등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복은 초월적인 힘·하늘로부터 증여받은 만큼 복을 받은 이들의 답례는 공동체에 선을 행하는 것으로, 이는 왕도 정치의 지향과도 상통한다.

왕도정치를 표방한 조선시대에서는 ‘환과고독(鰥寡孤獨)은 왕정(王政)으로서 먼저 할 바이니 마땅히 불쌍히 여겨 구휼(救恤)해야 될 것’⁸⁾임을 정책을 논할 때마다 우선적으로 언급할 만큼, 의지할 곳 없는 이를 측은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돕는 행동은 유교적 삶을 지향한 위정자들이 마땅히 실천해야 하는 현실적인 과제였다.

이 두어 가지 일은 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아니고, 행하면 몹시 유익하

7) 홍나래, 『희생명당 풍수설화에 나타난 구복(求福)행위의 의미와 결과에 대한 일고찰 -“사자생손형(死子生孫型)”, “유복자삼정승형(遺腹子三政丞型)”, “재취후손형(再娶後孫型)”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27집, 2013, 152~153쪽.

8) 『태조실록』 1392,7,28 태조의 즉위 교서: 『孟子』 <梁惠王下> ‘老而無妻曰鰥 老而無夫曰寡 老而無子曰獨 幼而無父曰孤 此四者 天下之窮民而無告者 文王 發政施仁 必先斯四者’.

여, ……인심을 감화(感化)시킬 수 있고, 천의(天意)를 감동시킬 수 있으며 화기(和氣)를 부를 수 있고, 재변(災變)을 없앨 수 있으며, 지극한 다스림 [至治]을 일으킬 수 있고, 큰 복[景祚]을 연장할 수 있사오니,
『태종실록』 1401.1.13. 참찬문하부사 권근이 치도 6조목을 임금에게 권고하다

사람들은 위정자가 사물을 살리는 덕을 펼쳐 백성들이 호응하면 다시 하늘이 감동하여 천지의 화기(和氣)를 지속적으로 불러들인다고 보았다. 천명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는 화기를 이끌어 재액을 막아 공동체를 안정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아야 했다. 곧 화기를 불러들이는 것은 정치가 잘 되고 있다는 지표였다. 그러므로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국정이 잘못되거나 공동체가 위기감을 느낄 때면 치자는 스스로를 반성하도록 종용받고 화기를 상하게 하는 근원을 적극적으로 찾도록 노력했으며,⁹⁾ 가시적으로는 죄인을 석방하거나 소외된 자들을 구휼하면서 천지의 화기를 다시 끌어오고자 했다.¹⁰⁾

“인륜(人倫)의 도리는 혼인(婚姻)보다 중(重)한 것이 없고, 제왕(帝王)의

-
- 9) 『세종실록』 1441. 윤11.7 재변이 나타나는 이유에 관한 사헌부의 상소문, “…전하께서는 하늘의 경계함을 삼가하사 더욱 몸을 닦고 마음을 살피시며, 밝은 교서를 내려 중외(中外)에 고유(告諭)하여, 군신(群臣)의 사정(邪正)과 정치의 득실과, 백성의 기쁘고 슬픔과 상벌(賞罰)의 적당하고 못한 것 등을 모두 상세히 진술하게 하여, 만약 충직(忠直)한 말과 적당한 의논이 시국에 합당함이 있거든 채택하여 시행하시고, 무릇 쓸데없는 비용과 급하지 아니한 일은 일체 정지하시며, 맑고 깨끗하게 하여 화기(和氣)를 기르시고 천변(天變)을 막기에 힘쓰옵소서.” …: 『중종실록』 1541.3.15. 정사에 힘써 인심을 화평하게 하면 재변과 요기가 없어질 것이라고 전교하다
- 10) 『승정원일기』 인조11년, 1633.5.9. “…전후로 풀어 준 자의 수효가 많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아직도 죄적이 있는 자가 이처럼 많으니, 천지의 화기(和氣)를 손상하여 수재(水災)와 한해(旱害)를 초래함이 반드시 여기에서 연유되지 않았다고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정사는 원녀(怨女)·광부(曠夫)가 없게 하는 것이 긴요하다. 저 옛날 나라 다스리는 큰 법도(法度)도 모두 이를 중히 여겨 중춘(仲春) 시절에 남녀(男女)를 모이게 하여 적시에 혼인하게 하였으니, 만물이 모두 성장을 이루어 사람도 화목하고 기운이 화평하여 풍속이 순박하고 아름다웠으며, 음양(陰陽)이 그 질서를 따르매 재앙도 생기지 않았던 것이다. (하략)

『성종실록』, 1491.1.6. 집안 사정으로 결혼 못 한 처녀들의 결혼 비용을 관에서 부담하도록 하게 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남녀의 혼인은 인륜 중사(人倫重事)이온데, 만일에 때를 잃게 되면 후시 화기(和氣)를 상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나이 많은 처녀는 성혼(成婚)을 재촉하는 법이 《속전(續典)》에 실려 있어서, 경외 관사(京外官司)가 때때로 받들어 시행하옵지마는 남자는 저희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처음부터 법을 세우지 않았사오나, ...(중략) 아들은 부모에게 늘려서 자유를 얻지 못하는 자가 간혹 있으므로 역시 가없사옵니다. 청하건대, 이제부터 남자도 역시 혼인을 재촉하게 하옵소서.” 하매, 의정부에 내려 주어 의논하게 하니, 모두 의논하기를,

“헌부의 청함이 매우 좋다고 하겠으나, 남자의 때를 놓치는 것이 어찌 여자의 때를 놓치는 것과 같겠사옵니까. 대저 경솔하게 새 법을 세운다면 반드시 폐단이 생길 것이오니, 남자 촉혼(促婚)은 그리 중한 일 같지 않고, 또 경솔하게 새 법을 세우는 것은 온당치 않을까 하나이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439.4.14. 남자의 촉혼에 대한 새 법을 세우지 못하게 하다

그런데 화기를 상하게 하는 대표적인 예는 무엇보다 혼인하지 못한 이들의 한이라 믿었고 특히 나이가 많도록 혼인하지 못한 여인에 대해서는 원망을 품은 여자, 원녀(怨女)라 부르며 주목하였다.¹¹⁾ 그래서 국가에서

11) 『맹자』 梁惠王 下 ‘當是時也 內無怨女 外無曠夫 王與好色 與百姓同之 於王 何有’

여성 혼인에 대한 혜홀 조항을 법에 신고¹²⁾ 고을 수령에서부터 임금에 이르기까지 남녀가 혼인하지 못한 것을 보면 때마다 구제책을 마련하고자 했다.¹³⁾

특히 남성보다 여성의 원통함을 더 문제 삼았는데, 가부장 성정치 아래에서 여성은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없으며 오직 가정 안에서 남성에게 종속되어 존재하기 때문이었다.¹⁴⁾ 여성은 혼인에 의해서만 사회적 삶이 의미화 될 수 있었고 혼인 과정에서도 수동적이어야 했다. 혈연적 가족주의를 확장한 공동체 문화에서 여성의 혼인은 결국 가부장, 국가의 권력과 책임의 문제로 인식되었다.

남녀의 관계가 사회를 안정되게 한다는 믿음은 민간에서도 강렬했다. 성년이 된 여인이 혼인하지 못하면 원망이 쌓일 뿐만 아니라 만약 미혼인 채 죽는다면 처녀귀신(손각시, 손말명)이 된다고 생각했다. 여타 원귀들 중에서도 처녀귀신은 가장 두렵고 꺼림칙한 존재였기에 혼인할 때 상대방 집에 손각시의 저주가 있는지 염탐할 정도였고, 처녀로 죽은 여인은 남복을 입혀 거꾸로 문는다거나 십자로 아래 몰래 매장하여 못 남성이 그 위를 밟고 다니게 했다.¹⁵⁾ 미혼의 처녀가 사망한 집안에서는 망자혼인굿을 시키기도 했으며,¹⁶⁾ 때로 처녀의 원혼은 호구굿에서 불리는 호구신이

12) 『경국대전』 禮典, 惠恤, ‘士族之女年近三十 貧乏未嫁者 本曹啓聞量給資財 -其門戶不至窮乏 而 年滿三十歲以上未嫁者 其家長重論’

13) 정성희, 『조선의 성풍속』, 가람기획, 1998, 18~19쪽 참고.

14) 정지영(2004)은 조선시대 혼인과 화기에 대한 성별적 담론을 여성에 대한 선택적 보호, 통제정책이었다고 보았다.-정지영, 「조선시대 혼인장르책과 독신여성」, 『한국여성학』 제20권 3호, 2004.

15) 村山智順, 『조선의 귀신』, 김희경 역, 동문선, 1990, 175쪽.; 권선경(2014)에 의해서도 처녀로 죽으면 무덤을 만들지 않고 입에 인절미를 물려 사거리 복판에 엎어 묻었다는 내용이 면담 조사되어서 이와 비슷함을 알 수 있다.-권선경, 「여성원혼의 존재양상과 신격화의 의미-서울지역 호구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vol.6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4.

되어 대대로 지역의 무속의례에 등장하거나 강릉 해랑당 전설처럼 마을의 당신이 되기도 하였다.

원녀가 원귀가 되어 발생한 우환은 개인과 집안, 마을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였다. 손각시는 대대로 그 집을 저주하고 다른 처녀에게 해를 입히는 것으로 알려졌고,¹⁷⁾ 호구신은 별상호구마마와 착종되면서 마마·전염병을 옮기는 신으로,¹⁸⁾ 상사병으로 죽은 강릉 처녀는 어촌에 고기가 안 잡히게 했다. 그러므로 굿을 해서 원한을 위로하여 돌려보내거나, 사당에 나무로 남자의 생식기를 깎아 걸면서 귀신의 욕망을 살피고자 했다. 민간 뿐만 아니라 나라에 가뭄이 들면 조정에서는 궁에 있는 궁녀들의 원망으로 화기가 손상되었기 때문이라 주장하여,¹⁹⁾ 왕도 어쩔 수 없이 이들을 상징적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²⁰⁾

전염병, 흉어(凶漁), 가뭄을 야기하는 원녀들의 존재는 공동체에 위기

16) 서울 삼성동에 있는 화주당(化主堂)은 예로부터 처녀 총각으로 죽은 이들의 망자혼 인국을 하는 대표적인 굿당이다. 무당들은 인형으로 혼례를 치르고 신방도 마련해주는데, 시간이 지나 가보면 남녀 인형이 어느새 포개져 있다면서 이를 영혼이 혼인한 증거라 믿는다.

17) 村山智順, 앞의 책, 175쪽.

18) 권선영(2014), 앞의 논문.

19) 세자(世子)가 임금에게 말하기를, “이제 가뭄이 심하니, 이것이 궁녀들의 원한의 소치(所致)인가 합니다. 원컨대, 궁녀로 하여금 윤번(輪番)으로 입시(入侍)하게 하여 남녀의 정(情)을 다하게 하면 거의 화기(和氣)에 이르러서, 가뭄의 재해(災害)를 그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태종실록』 1414. 6. 가뭄으로 인하여 궁녀를 3번으로 나누어 입시하게 하다)

20) 궁녀를 출궁한 기록의 예는 다음과 같다. 『숙종실록』 1685.2.29. 궁녀(宮女) 25인을 내보냈으니, 이는 가뭄 때문이었다.; 『영조실록』 1750.9.3. 궁녀 45명을 내보내다 ; 『영조실록』 1765.8.8. 우물에 몸을 던져 죽은 궁인에게 홀전을 베풀고 궁녀 30명을 풀어 주다.; 홍순민(2004)은 이익(1681-1764)의 『성호사설』에 궁인 수가 684명으로 언급된 것에 대해서 궁인의 범위를 넓게 본 것으로 해석하였고, 정조대의 궁녀 수를 4~500명으로 추정하였다. -홍순민 「조선시대 궁녀의 위상」, 『역사비평』, 68권, 2004.

감을 불러일으킨다. 인간사에는 이런 일이 언제라도 생기므로 화기가 손상된 위기 상황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위정자가 자기 사명을 다하여 하늘의 복을 받는 길이다. 그러므로 ‘화기가 상한다’는 말은 위정자들의 자기 반성을 촉구하며 현 제도나 정책, 사안에 변화와 대응을 종용하고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라는 요청이었다.

그런데 화기를 상하게 하는 존재는 신분상 결혼할 수 없는 궁녀들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던 만큼 여승과 환관의 아내까지도 가끔 언급되었지만,²¹⁾ 무엇보다 조선후기로 갈수록 늘어나는 과부가 문제였다.

무엇을 일러 개가를 금지하는 폐단이라고 하겠습니까. 근래에 사부가(士夫家)에서 다투어 조혼(早婚)을 하여 겨우 12, 3세에 과부가 되기도 하고 15, 6세가 채 못 되어 과부가 되기도 하니, 천지의 화기(和氣)를 해칠 만한 일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엄히 신법(新法)을 세워 일체 개가를 허용하고 개가한 뒤에 낳은 자손에 대해 청반(淸班)에 오르는 데 구애됨이 없게 한다면 원통한 기운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국역 일성록』 1776.6.13. 유학(幼學) 강치휴(康致休)가 상소하여 당금의 폐단을 진달한 데 대해, 비답을 내렸다.

재가녀자손금고법(再嫁女子孫禁錮法)은 개가를 금지하는 것보다 그 자손의 관직 진출을 통제하던 법이었으므로, 향촌에서는 양가의 여인들이

21) 『성종실록』 1491.5.22. “... 나이가 젊어 여승[尼僧]이 되어 배필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것도 또한 화기(和氣)를 손상시켜 재앙을 초래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청천대 세속으로 쇄환(刷還)하도록 하소서.”; 『중종실록』 1518. 6.19. “환관(宦官)이라는 것은 남자도 아니요 여자도 아닌데, 그들에게 혼가를 허락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음양(陰陽)이 어긋나고 화기(和氣)를 상하여서, 위로는 수한(水旱)의 재앙을 부르기도 하고 아래로는 혹 부인(婦人)의 도리를 더럽히는 수도 없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재혼하는 경우도 있었다지만,²²⁾ 조선총독부에서 조사할 당시까지도 중류층 이상의 과부가 재가하면 지탄을 받았다고 할 정도로 수절은 가문뿐만 아니라 여성 자신을 평생 따라다니는 평판이었다.²³⁾ 조혼 때문에 청춘과부, 소년과부라 불리는 10대의 젊은 과부들, 혼례를 제대로 치르기도 전에 신랑이 사망한 경우까지 늘어나니 비인간적인 규범에 대한 공동체의 도덕적인 부담감은 커져만 갔다.

여인들의 운명이라거나 상부살 팔자로 돌려서 오히려 남편을 잡았다고 탓해보지만, 우리 설화와 문화 속에서 운명과 팔자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선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맞으면 오히려 변하는 것이다. 정성을 다하는 이들에게 수명을 늘려주고 효심이 지극한 이들에게 명약을 전하고 아낌없이 베푸는 이들에게 명당을 안내해 준다고 믿었다. 하지만 과부의 현실은 이들과 달리 환상적이거나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과부 보쌈이 홀아비가 공동체 남성들과 모의하여 장가들 수 있는 하나의 방식으로 통용되면서, 시댁이나 친정으로부터 특별히 보호받지 못하는 과부는 탈취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과부가 지체롭게 보쌈의 위기를 넘기고 원하는 선비에게 개가하는 낭만적인 이야기²⁴⁾만큼이나 보쌈·성폭력에 항거하다 자결하거나 살해당한 일, 이 때문에 소송하거나 정려한 일들이 안타까운 사실담으로

22) 정지영, 「조선후기 과부의 수절과 재혼」, 『고문서연구』, vol. 18, No.1, 한국고문서학회, 2000.

23) ‘繼父는 義父라고도 하고 母조의 後夫를 말한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朝鮮 世宗代부터 10여 년 전까지 여자의 재가를 금지[開國 503年(1894)6月28日 議案「寡女再嫁를 自由케하는 件」 “과부의 재가는 귀천을 막론하고 그 자유에 맡길 것”참조]하였고, 풍속도 역시 재가를 천시하였다. 그래서 중류이상에서는 寡婦가 재가하는 예는 거의 없다고 하여도, 하류사회에서는 과부의 재가는 그 예가 적지 않다.[『經國大典』 『禮典』五服條에는 繼父를 인정하였고, 『刑法大全』第62條- 第『7,8號에도 역시 이를 열거하였다.』 -『(국역) 관습조사보고서』, 정궁식 역, 한국법제연구원, 1992, 318쪽.

24) 『청구야담』 <得二妾權上舍福緣>

전송되었다.²⁵⁾

도덕적인 주체를 추구하는 조선사회의 가부장들에게 남녀 간 성관계 경험이 전혀 없는 청상과부의 존재는 이념 때문에 인간의 기본권을 말살한 기독교의 비도덕적인 모습을 반사해주고 있다. 결국 청상과부란 원통하고 불쌍하면서도 걱정스럽고 폭력에 무기력하게 노출된 불안한 존재로²⁶⁾ 공동체의 제도와 규범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가부장 주체들에게 계속 경고하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한다. 어떻게 도덕적 불안과 죄책감을 완화시킬 것인가? 권선비 이야기류는 과부의 욕욕을 경계하지도 않고 개가금지의 규범으로부터 이탈하지도 않은 채 선비의 시선을 따라 당대의 문제를 대면하고자 했다.

3. 소외자의 원망 해소에 대한 설화 공동체의 공모

본 장에서는 선비가 청상과부에게 남녀의 이치를 알려주어 한을 풀어 주었다는 <권선비 이야기>·<민진원 이야기>를 중심으로 여인의 욕망이 설명되고 해소되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시혜적 성관계 모티프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이상사가 박정하여 불운하게 되다>를 포함하여 본고에서 다룬 주요 설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25) 『청구야담』 소재만으로도 <節婦當難辯高義>, <捉凶僧箕城伯話舊>, <訴輦路忠僕鳴冤>, <訪名卜冤獄得伸>가 있다.

26) 『국역 일성록』 정조 6년 1782.11.16. “...도응유는 집안에 나이 어린 과부 며느리를 두고 있었으니, 예사로운 생각으로도 강포(強暴)한 자에게 능욕(凌辱)을 당하지는 않을까, 정분(情分)이 나서 사통(私通)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근심을 풀지 못하였을 것이다...”

<권선비 이야기>

1. 권씨 선비는 성균관에 출입하고 과거시험을 보는 유학생이다.
2. 갑자기 비가 와서 길가 집 처마에서 이를 피하다 그 집 여인과 수작하고 동침했다.
3. 선비가 여인의 시부를 만나서 남녀의 이치를 알게 해주어 고맙다는 말을 듣는다.
4. 권선비 아내 장례비를 여인의 시부가 대신 갚았다.
5. 삼년 후 시부가 사망하자 권선비가 지극히 장례를 치렀다.
6. 시부의 장례를 마치자 여인이 권선비에게 감사하다며 영결의 말을 하고 자결했다.

<민진원 이야기>

1. 민진원(1664-1736)은 엄한 부친 아래에서 외출을 삼가고 열심히 독서하였다.
2. 붓을 팔려온 여자아이에게 여주인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주고받은 후 몰래 만나러 갔다.
3. 젊은 여인이 소복을 입고 나와 남녀의 이치를 모르는 것이 한이라 하여 동침했다.
4. 관계를 마치자 여인이 감사하다고 인사한 후 칼로 찢러 자결했다.
5. 집에 와서 외출을 책망하는 부친에게 사연을 말하자, 부친은 아들이 잘못하지 않았으나 여인을 구하지 못하여 혹시 앞길에 화가 미칠지 걱정했다.
6. 민진원이 영달하고 가문을 이은 것은 이때 적선했기 때문이다.

<이상사가 박정하여 불운하게 되다>

1. 이른 나이에 진사가 된 이용묵은 지조 있고 촉망받는 젊은이였다.
2. 소나기를 만나 길가 집 앞에서 피하다 집주인의 초대를 받았다.
3. 여주인은 남녀지리도 모르는 청상과부로 부모가 개가시키려 하자 스스로 남편감을 고르려 한다며 마음을 고백했다.
4. 이용묵이 자신의 처지를 들어 거절하고 예의가 아니라며 꾸짖고서 떠났다.
5. 다음날 그 집 여종이 여인이 자결했다고 전하며 들어가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부탁했으나 화를 내며 거절했다.
6. 이용묵은 과거를 볼 때마다 사고가 나 끝내 급제하지 못했고, 여인 때문에 불운하게 되었음을 생각하다 병이 들어 죽었다.

1) 여성 욕망에 대한 전략적 분절과 특성화

가부장 사회는 주체의 도덕적 불안을 야기하는 청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그들의 원망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했다. 남편이 부재하고 성경험이 전무하다는 의미에서 청상과부의 상황은 혼인하지 못한 원녀들의 한 및 그에 대한 해결방안과도 연계되어 보인다.

‘한 추악한 비자가 물을 길고 지나거늘 제인이 가리켜 웃어 [말하여] 가로 되 “此女가 나이 삼십이로되 추악한 연고로 오히려 陰陽之理를 알지 못한 지라. 만일 가까이 하는 자이면 [가위] 적선이 될 것이니 반드시 신명이 도움이 있으리라” 박공(박문수 : 필자 주)이 그 말을 듣고 <축은히 여겨> 그 밤에 厥婢가 또 지나거늘 인하여 불러들여 동침하니 꺾비가 크게 즐겨 가더라.’

-『청구야담』 <矗石樓繡衣藏踪>

총각으로 남의집 살다가 어쩌다가 인제 하루 저녁이는 산으로, 산중을 들어갔는다. 아 밤에 야밤에 그냥 인자 질을 잊어버렸어, 질을 잊어버려서 헤치고 대니는다. 아 어디서 요렇게 불이 뻥하게 비치거던. 거기를 찾아 들어가. 찾아들어가서 잠 좀 자고 가자고 허니께 이쁜 가시내가 나와, 가시내가. 참 좋거던, 그래 잠도 못자고 하구이(오래)붙어있지. 그래 참 밥을 잘해주고 거 자는다, 이놈의 가시내가 이렇게 참 비어먹어도 비린내 만나게 생겼어. 그래서 같이 잤단 말이여. 자고 아침에 보니께는 툭툭 터져갔고 그냥 순전히 나병자여. 그러디 정승의 딸여, 정승의 딸. 정승의 딸인데 함막을 쳐놓고, 인저 [조사자: 네?] 함막이라고 그 산중이다가 막을 쳐 놓고 밥을 날라다 줘. 정승의 딸인다.

아, 그래 참 본게 두고 볼 수가 없지만은 어찌 한 몸이 하룻저녁 자고 그랬응게. [조사자: 밤에 볼 때는 그렇게 이뻐는데요] [청중: 분칠해버린게, 그때도 분이 있었던거만.] [조사자: 옛날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듬해 한해 끌려서 그날 날자로 받아졌어. 서로 그때 만나자고 그러디 이 여자가 지의 서방님 오면 술 즐라고 술을 좋게 향아리다 해놓고는 담어냈는다. 아, 거시기가 들어가빠져 죽었던가 보데. 한모새(殺母蛇)라고 그 독사 큰놈. 고것이 빠져 죽어 버렸어. [조사자: 한모새요?] 뱀이라고. [청중: 병 낫을라고 들어갔구만.] 큰뱀. 그놈이 한 천년지거나 만년지기 먹은놈여. 그놈이 씹 들어가서 죽었던 말이여. 그러디 술을 여자가 떠다 먹고, 떠다 먹고 아 인자 환골탈퇴가 되어 인자 가서 그 만날 때 대체 들어갔어 만났어. 확 참 낮어버렸단 말이여.

-『대계』 6-8 <문둥병 처녀 낮게 한 총각>²⁷⁾

거 풀베러 가다 보니, 웬 색시가 말야, 아주 커다란 색시가 물에 떠내려와서 말야, 갯가 내 부치서 죽었던 말야. 만져 보니 금방 숨이 잤단 말야. 만져 보니 그 숨이 있는 것처럼 말야. 그래 풀섶에 엮고 들어 갔던지 원 어떻게 끌어 앓고 들어 갔던지 들어 가가지고 말야, 죽은 데다가 이놈이 이 망한놈이 참, 덤뻬단 말야. 그래고는 거기다가 잘 뇌뵈는데, 그 이튿날인가 사람

27) 동일한 유형으로 <부마가 된 머슴>(2-8, 678) 등이 있다.

찾으러 나섰거든. 그날 밤에 또 자는데 현몽하더라. 현몽하는데 색시가,
 “당신 때문에 내가 죽어도 송각시(주:손각씨) 처녀로 죽은 귀신는 면했
다.”고 말야. “면하고 당신한테 시집간 거와 마찬가지로니 만큼 아주 고맙다.”
 (중략)

“당신 때문에 내가 집에 찾아가고 인제 원도 풀고 그랬으니 만큼 내가 아
주 죽은 건 확실하오. 확실하나마 당신 처가집이오. 처가집이니 가서 보라.”

- 『대계』 2-6 <처녀귀신과 결혼한 총각>28)

혼인하지 못한 여인들, 원녀의 원망은 다양하다. 위의 예문처럼 추악한
 비자는 천한 신분이기에 얼굴을 드러내고 부지런히 자기 일을 하지만 상
 대에게 호감을 주는 인상이 아니다보니 사사건건 조롱을 받고 있다. 문등
 병에 걸려 홀로 움막에서 지내는 여인은 신체가 병든 것도 힘겨운데, 가
 족으로부터 분리된 상처를 안고 있다. 죽은 여인은 고인을 편하게 장사지
 내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문화에서 사고사 한테다 시신까지 남들 이목 앞
 에 버려진 상태이다.

여인들이 처한 상황은 그녀들의 타고난 조건, 힘, 의지로 도저히 극복
 할 수 없는 경우인데, 설화 향유층은 이를 인간적 삶이 최소한도 보장되
 지 못하고 목소리까지 막힌 상태로 인식하여 남성과의 관계맺음을 통해

28) 『한국구비문학대계 분류집』 633-8 ‘죽은 여자와 동침하기’에 나오는 각편들로, 시간
 (屍姦)은 대계 처녀귀신이 면하게 된 것을 죽은 여인의 부모가 언급하며 사위로 삼
 거나 죽은 여인이 꿈에 나와 나타나 감사한다. 남자가 귀신의 도움으로 부자가 되
 기도 한다.(9-1 69 <원혼의 도움>)

이와 유사한 내용은 문헌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어우야담』의 <귀신과 정을 나누
 박엽>, <종랑의 시신을 묻어 준 무사>는 사대부가 젊은 여인의 시신과 동침한 후
 매장을 해준 이야기들이다. 이때 남성들은 길가에서 만난 여인을 따라가 대접받고
 동침했으며, 다음 날 그 집에 시신이 다수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애통해하며
 장사를 지냈고, 이후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된다. -『어우야담』, 유몽인 저, 신익철 외
 역, 돌베개, 2006. 각편의 제목은 책을 따랐다.

벗어나게 한다. 여기에서 조롱받던 여인이 박문수와 관계를 맺고 표현한 기쁨은 일회적인 성적 욕망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선비와의 만남 후 그녀는 떠난 선비의 옷을 지으며 그의 성공을 날마다 기원하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보인다. 문등병에 걸렸던 여인도 마찬가지로, 남성과의 관계는 집으로부터 떨어져 정서적으로 유기된 여인에게 삶의 의지를 북돋아 주었다. 여인은 그를 위해 밥을 하고 술을 담그며 기다린다. 횡액을 당해 시신조차 버려졌던 여인은 이를 들쳐 업고 길을 나선 남성에 의해 부모를 만나 애도 속에 안장될 수 있었다.

설화 속 여인들은 성관계가 비록 한차례라도 이를 통해 콤플렉스를 극복하거나 생의 의지를 찾거나 매장되는 등 결핍을 채우고 존재의 전환을 이루어낸다. 남성 중심의 담론장에서 위의 사례들처럼 남성과의 성관계를 통해서 여성이 존재전환을 일으킨다는 설정은 소외된 여성들에 대한 공간을 합리화 한다거나 여성에게 남성·성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는 편벽된 시각을 강화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성의 다양한 욕망을 인지하고 해소하는 계기로 작동될 때 호기로운 이야기로 긍정될 수 있었다.

이처럼 설화에서 원녀에 대한 남성의 성적 관계 맺음은 인간적 삶에서 성경험이 필수불가결함을 내세우면서도 그 이면에 여성의 사회적/정서적/육체적 욕망이 다양하게 교차되는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본고에서 살필 청상과부에 이르면 성경험에 대한 의미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 일반 원녀들과 달리 청상과부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설화 향유층이 청상과부들에게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돌파구로 성관계 기제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그녀들의 욕망을 보다 전략적으로 특성화해야 했다.

생이 가로되,

“그러면 主婦가 그대에게 어찌 되나뇨”

노인이 가로되,

“나의 자부이라. 자식이 십오세에 이 며느리를 취하여 합례를 미처 못하고 요사하오니 자부의 금년이 이십 사 세라. 비록 성혼하였으나 [오히려] 음양의 이치를 모르느니라. 至情間 불쌍함이 마음에 잊지 못하는지라 천지간의 미물이라도 음양의 理를 다 알거늘 제가 홀로 알지 못하는 고로 매양 개가함을 권한즉 제 말이 [자신이] 만일 他門에 간즉 시부의 신세가 의리할 바가 없으리<니 차마 못할 바이>라.’ 하고 마침내 좃지 아니하여 이제 팔, 구 년이 되도록 일향 수절하더니 향일 서방주의 왕래하신 일을 제가 이미 언급 하옵기에 내가 또한 그 願 품을 <심히> 다행하여 한번 뵈옵기를 원함이 오랜지라...

『청구야담』 <권선비 이야기>²⁹⁾

“저는 청상으로 몇 년간 원통함을 말할 곳이 없었습니다. 만약 음양의 이치를 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 차마 하기 어려운 말을 감히 알지 못하는 분께 말씀드리니, 괴이히 여기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말이 가여워서 창자를 끊는 듯했다. 공이 부득이 남녀 간의 기쁨을 이루어 주었다.

『계암만록』 <민진원 이야기>³⁰⁾

청상인 며느리를 안타까워하는 시부의 감정도 단순하지 않다. 그러나

29) 吾之子婦也 吾子十五娶此婦 未及合禮而死 此婦今年爲二十四 雖得成婚 尙未知陰陽之理 尋常矜惻 不忘于心 凡生天地之間 雖微物皆知其理 而渠獨不知 故每勸其改嫁 則渠言渠若他適 老漢身世 無所依歸 終不肯從 今到八九年 一向守節矣 書房主向日往來之事 渠已言及 吾亦喜其遂願 願一見之者久矣 今日相逢 亦甚晚矣 … 『청구야담』 <權斯文避雨逢奇緣>; 『청구야담』(김동욱·정명기 역, 교문사 1996)에서 현대역으로 번역한 내용을 그대로 실는다. 현대역 번역에서는 [] < > 표시로 한문본과 한글본의 특성을 구분해서 보여주는데, 본문에서 []의 표시는 한문본에만 있는 내용이고 < >은 한글본에만 있는 내용 표시이다.

30) 妾青孀幾年呼冤無處 若知陰陽之理死無餘恨矣 冒此不忍之言敢說於生平不知君子勿爲怪物憐之 々言々可矜令人斷腸 公迫不得已乃成雲雨之歡 『계암만록』 <丹巖閔公鎮遠 以嚴父兄之子>

여성이 성적인 경험과 감정을 공론화 할 수 없는 사회에서 성에 대한 여성의 경험과 감정은 남성들의 시선으로 관찰되고 그들의 대화 속에 노골적인 주제로 떠오르며 평가될 뿐이다. 권선비는 여인과 동침했지만 그녀가 '심회를 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밀한 사연이나 의미들을 알지 못했고, 민진원이 만난 여인은 자신의 심정을 그동안 주위에 말하지 않고서 처음 본 그에게 짧게 비추었을 뿐이었다.

여성이 관찰될 뿐 담론에서 배제되면서 이야기는 과부에 대한 폭력적인 관습과 사회의 시선, 관계의 부재에 따른 여인의 고립감, 삶의 목적 부재 등에 대해 외면한다. 더욱이 그녀들의 환경은 매우 유복하게 설정되어 있고 가족들은 그녀에게 우호적이므로 시부와 선비, 아버지와 아들 세대가부장들의 대화 속에서 과부의 문제는 오직 성적 결과와 원망만이 주요하게 반복된다. 이렇게 가부장들의 시선을 통해 급박하게 해소해야 할 청상의 한은 육욕과 성적 쾌락으로 축소되면서, 이로써 수월하게 해소될 수 있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궐녀가 생더러 일러 가로되 “내가 [이미] 세상에 나 <팔자가 기박하여 청년 喪夫하고> 음영[의 이치]를 모르더니 [媿父가 또한 일찍이 그것을 권한 고로] 항일 서방주를 만나 이미 인간지락을 안즉 금일 죽어도 [萬萬] 한이 없으되 그옥이 생각건대 시부가 다른 자녀가 없고 다만 나를 의지하였으니 [만약] 내가 한번 죽으면 시부 신세가 극히 처량한지라. 이로 인하여 지금까지 살았더니 이제 시부가 天年으로 棄世하시고 또 三喪을 마쳤으니 내가 [다시] 무엇을 바라고 세상에 [오래] 살아 있으리요 이로조차 서방주를 영결 하옵나니 만수무강하소서. 첩이 지하에 가 서방주 은혜를 갚으리이다.”

『청구야담』 <권선비 이야기>

여인들은 주위의 말에 따라 수절을 포기하고 남성과의 성적 관계를 무

엇보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이는 결코 그들 삶의 이유가 되지 못했다. 시부가 말하던 남녀의 성관계라는 기표는 여성적 삶의 기회와 체험 같은 복합적 의미를 담지 않은, 그야말로 육체적 욕망이었기 때문이다. 공동체가 과부에 대해 폭력적으로 가로막은 생의 의미는 성관계를 경험한다고 새롭게 생기는 것이 아니었다. 권선비와 처음 동침한 여인은 얼굴에 기쁜 빛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한숨을 쉬며 슬퍼할 따름이었고, 시간이 흐른 뒤 그에게 감사함을 전달하고 자살해 버린다. 민진원과 동침한 여인은 고맙다고 인사한 후 곧바로 자결하였다. 풍정(風情)이라거나 운우지환(雲雨之歡)으로 표현된 남성의 욕망과 기쁨, 다행이라거나 단장을 끊을 정도로 슬펐다는 남성들의 위로에 여인들은 슬픔, 탄식, 영결의 언어로 반응할 뿐이었다.

이처럼 서사의 주체는 남녀 간 성관계를 전제한 여인의 존재 방식·욕망 성취의 방식에 대해 문자 그대로 음양지리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거나 이를 통해서 경험되는 쾌락이 지극하다고 해석하며 청상과부들에게 폭력적인 환상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하여 여인들은 음양의 이치라는 환상이 깨어지면서 자살하거나 환상이 사라지고 더 크게 남은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놓인다. 그럼에도 선비들은 여인의 입을 통해 그녀들이 음양지리를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원통하지 않다고 말하게 한다. 이처럼 가부장의 시선은 청상의 한을 육체적 욕망·성적 쾌락으로 수렴하면서, 인물 간 관계와 타자의 감정을 자신들의 세계 속에 조화롭게 구조화하고자 했다.

2) 시혜적 성관계를 통한 보은 관계로의 구조화

“첩은 바로 이웃집 조공의 딸입니다. 날마다 후원 초당에 거처하며 바느질만 익히고 있었습니다. 가법이 매우 엄하기 때문에 한 걸음도 문 밖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득 공계서(상진尙震: 필자 주) 글 읽는 소

리를 듣고는 마음이 움틀거리고 정신이 흔들려서 저도 모르게 담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원컨대 공께서는 사랑해 주옵소서.”

공은 얼굴빛을 바꾸고 꾸짖으며 말했다. (중략) 그리고 서침으로 그녀의 종아리를 때리니, 피가 흘러 얼룩이 졌다. 그리고 호되게 한 차례 꾸짖고 나서 다시 따뜻하게 위로하고 그녀를 내보냈다.

『양은천미』 <조부인이 의기에 감동하여 기이한 원한을 해결하다>³¹⁾

이야기 세계에서 주체의 통과의례에는 간통과도 같은 탈규범적인 사건이 주요하게 배치되기도 하는데, 이는 성의 허용과 배제의 기준이 성별·계층별 위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설화 속 주인공들은 혼인과 출사라는 사회화 과정 속에서 간통 남녀를 처단하거나 유혹하는 여인을 물리치며 공동체의 주요한 가치와 윤리를 습득한다.³²⁾

처녀가 이를(이희갑: 필자 주) 한번 바라보자 정신이 아찔해져 생각했다. ‘여자로 태어나서 이와 같은 낭군을 얻는다면 죽어도 정녕 한이 없으리라. 다만 내 출신이 미천하니 어찌 감히 이를 바라겠는가?’

『양은천미』 <이보국이 관을 써서 여인의 원한을 풀어준다>

이생이 괴이하게 여겨 본 즉, 언문으로 된 편지였다. ‘첩은 환관의 처이온데, 나이가 삼십이 가깝도록 음양의 이치를 모르는 즉 종신의 한이 되었습니다. 오늘밤은 마침 조용하온 즉 원컨대 담을 넘어 찾아 와 주소서.’ 이생이

31) 『양은천미』는 이신성·정명기 역, 보고서, 2000의 제목과 본문을 실는다.

32) 홍나래, 『간통 소재 설화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참고. 위의 논문에서 징치형 ‘선비가 간통남녀를 징치하고 성공하다’와 ‘신랑 죽이려고 간부와 모의하기’ ‘여인이 간통하다 징치당하기’ 유형들이 대표적이다. 해당되는 문헌설화의 예를 들면, 『계압만록』의 남명 이야기(曹南冥少時任俠放蕩), 『계서야담』 정은 이야기(鄭桐溪蘊少時與洞中名下士作會試之行), 『기문총화』 <一儒生投筆而業武藝>, 『교수잡사』 <智郎免禍>, 『동야회집』 홍우원 이야기(洪尙書受撻避凶警戒一) 등이다.

보고서 대로하여 어찌 이러한 여자가 있단 말이나? 하고서 다음날 그 집으로 찾아가 주인 내시를 보고서 정색을 하고 꾸짖었다.

『계서야담』 <내시 처의 연정을 거절한 이생>³³⁾

제가 생각건대, 나이 15세도 되지 않아 과부가 되어 남녀 음양의 이치를 몰라, 하늘의 호생(好生)하는 덕을 저버렸으니, 타인에게 시집가서 아들 딸 낳아 일생을 환락하게 하여 진실로 친리와 인정에 합당하게 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중략)

이생(이용목: 필자주)이 생각했다. ‘내가 지금 선비로서의 촉망이 대단한데 현달하기도 전에 먼저 재혼하려는 과부에게 손을 대면 끝내 반드시 허물이 되리니 거절하여 물리침이 낫겠다.’ 곧 소리를 가다듬어 크게 꾸짖었다. “부녀의 몸으로 무례하게 외인을 가까이 하여 어려운 기색도 없이 결혼을 청하니 이것이 무슨 예법이오? 다시는 이런 마음을 먹지 마시오. 죽음을 맹세하고 수절하여 예법을 충실히 함이 옳소이다.”

『양은천미』 <이상사가 박정하여 불운하게 되다>

여인들이 성적 욕망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은 금기시되었으나 위의 예문처럼 그 처지가 죽음에 이를 정도로 위태로운 것이라면 서사의 맥락이 달라진다. 그들이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했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화 전승층이 시선을 두었는데, 대개 성적인 관계 요구가 계급적 차별과 인간적인 삶의 기본을 막는 사회구조적 문제와 연결되었기 때문이다.³⁴⁾ 양천의 차별뿐만 아니라 양반과 세족, 적서의 차별 등 공동체에서 직업·재산·신분·문벌에 따라 배타적인 차별이 만연해지고, 청상에 과부가

33) 『계서야담』은 유희수·이은숙 역, 국학자료원 2003을 텍스트로 삼는다.

34) 강진옥(2002), 앞의 논문 참고; 『천예록』 <沈進士行怪辭花>에서 장자는 선비에게 천미 소생의 딸과 동침하도록 부탁하는데, 양반의 첩이란 명분으로 사랑하는 딸을 속전시키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밝힌다.

되어도 수절해야 하고 재물 때문에 환관에게 딸을 시집보내는 등 만만치 않은 사회 문제들이 여인의 탄식 속에 내포되어 있다.

조선후기 잦은 역병과 가뭄뿐만 아니라 임진왜란 당시 탄금대 전투의 패전도 원귀 때문으로 이야기될 만큼 사회 구조적 폭력과 배제 속에 쌓여 가는 원망은 이미 무시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그러므로 서사에서 공부하고 사회에 진출하려는 젊은 선비 앞에 등장한 여인은 선비의 인품과 문제해결 능력을 시험하는 존재이다. 여인들은 유혹자의 모습이거나 가까이 하기에 부끄러운 모습이기도 하다. 여인의 욕망을 인정하는 것은 규범을 벗어난 일이고 때로 위법적인 일이어서 선비의 출사와 명예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선비는 욕망을 경계하되 그것이 사회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분노의 전조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했다. 이용묵처럼 원통한 이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그 죽음조차 애도하지 않는 태도는 공동체의 존립을 위해서도 본보기로 징치되어야 했다.³⁵⁾ 이처럼 합법적이고 윤리적이라 생각한 행동들이 역으로 인간을 소외시키고 고통스럽게 할 때에는 원통한 이들의 사정에 공감하는 도덕적 주체³⁶⁾를 강력하게 요

35) “너희 집 낭자의 죽음에 내가 무슨 상관이나? 천한 노비인 내가 거리에서 선비의 옷소매를 잡으니 이 무슨 도리이나?” 마침내 소매를 뿌리치고 가 버렸다. 계집종은 크게 통곡하고 들어가면서 말했다. “박정하구나! 이 사람이여! 반드시 내 눈으로 네가 과거에 오르지 못함을 보리라.” -『양은천미』 <이상사가 박정하여 불운하게 되다>

36) 도덕(moral)과 윤리(ethics)는 상호 통용되기도 하는데, 본고에서는 아래와 같은 의미에서 구분하였다. 우리말의 경우 사회적 규범을 의미할 때는 윤리라는 말을 많이 쓰고, 개개인의 심성이나 덕행을 가리킬 때는 도덕이란 표현이 많이 사용된다고 한다. 의사윤리·통신윤리와 같이 윤리는 규범들의 체계라는 의미와 그 규범들이 적용되는 직역 같은 사회의 하부체계에 적용된다. 도덕은 어떤 상이한 믿음 체계를 지니고 있든 또는 어떤 직속에 속하든 상관없이 모든 합리적인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윤리와 다른 측면을 지닌다. 그만큼 도덕은 모든 합리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보편적인 의견일치를 보이는 행위규범과 도덕적 이상 및 덕을 포함한다. -최경석, 「생명 윤리에서 법, 도덕 및 윤리의 역할과 한계」, 『법학논집』 Vol.15, No.4, 2014. 참고 정리.

청하게 된다.

설화에서 여인의 한을 풀어주는 과정이 성관계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부부관계로 표현될 때에는 고통스러운 타자를 수평적으로 포용하는 이상적인 덕의 실천이라 할 수 있다.³⁷⁾ 하지만 과부나 원녀의 한에 이르면 남녀 간 행위가 수평적으로 그려지지 않는다. 이희갑이 상사병으로 죽은 여인을 자신의 첩으로 불러준 것은 지배층이 하층에 베푸는 은혜로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다시 혼인할 수 없는 처지인 과부나 환관의 처, 추녀, 문동병 환자, 시신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일회적인 성관계도 충분한 시혜로 설명된다. 불우한 여성을 첩으로 편입시키는 시혜적 관계맺음이 성의 문제보다 여성에게 삶의 기회·정체성을 주는 것이라면, 성관계 자체에 시혜적인 의미를 부여할 때에는 남성의 행위에 지속·책임의 의미가 열어지면서 남성은 여성에게 생의 기운과 함께 성에 대한 앎과 쾌락의 일방적인 증여자임이 강조된다.

서사에서는 남성과의 육체적 성행위만으로도 원녀는 한을 풀어 그들의 기쁨이 하늘을 감동시켜 상서로운 일을 일으키리라 기대된다. 이러한 시혜적 성관계 모티프는 성과 쾌락을 여성에게 베푸는다는 우월의식 속에서 여성의 몸을 더욱 타자화 하였고 복을 구하는 통로로 도구화하는 경향도 보인다. 구비설화에서 나환자나 시체와 관계한 남성들의 의도는 일방적인 착각이거나 성욕 때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운명을 바꿀 정도의 은혜로운 행동으로 해석되는데, 이러한 사고는 설화 집단에서 유쾌하게 공유되었다.

조선후기 사회는 남편이 없는 여인에게 어떤 삶의 목적이나 존재 이 유도 부여되지 않았는데, 공동체는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면서도 위협하고

37) 홍나래, 『첫날밤에 해산한 아내 용서하기』 설화에 나타난 덕(德)의 의미와 그 수용 양상, 『구비문학연구』 제33집, 2011 참고.

꺼림칙하다고 차별하면서 때로 폭력적이고 노골적으로 성적 대상화 하였다. 시혜적인 성관계 모티프는 사회와 규범 속에서 좌절된 이들의 한을 보듬는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사회적 갈등이나 부조리에 대해 외면하고 기존의 지배관계를 유지하면서 단지 시혜적 성을 통한 화복(禍福)의 문제를 부각시켜 흥미로운 성공담 혹은 실패담으로 구성된다.³⁸⁾ 결국 과부의 원망을 덜어주고 화기를 온전히 하겠다는 설화 향유층은 소외자의 한과 감정을 욕욕과 쾌락으로 축소시켰고, 시혜와 보은의 구조를 통해 불우한 이들로부터 감사의 인사와 축복까지 받아내면서 자신들의 도덕적 불안을 해소하고자 했다.

3) 사회적 책임의 부재와 조화로움의 균열

설화 속 과부·원녀와의 성관계는 타자에게 선을 행한 도덕적인 행위로 해석되었다. 그런데 <권선비 이야기>와 <민진원 이야기>에 이르면 이토록 은혜로운 행위가 타자를 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참혹한 얼굴로 자결하게 만든다. 연민과 포용의 태도로 해석되는 도덕적 행위가 어떻게 타자를 죽일 수 있는가? 그리고 그들의 죽음에 선비는 정말 무관한 것일까?

여인은 혼자인 삶을 부정하는 시선과 개가를 금기시한 규범 속에서 존재가 불안해졌다. 그런데 가부장들의 목소리에는 그러한 규범은 이전부터 존재한 것으로 개인이 책임지거나 변화시킬 수 없다는 변명이 묻어 있다. 여인의 시부가 “내가 또한 그 願 품을 <심히> 다행”이라며 성관계로 가장 주요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선언하거나, 민진원의 부친이 과부의 죽

38) 민진원은 인현왕후의 오빠로 숙종~영조 연간 다양한 정치적 고비에도 무탈하게 영달한 인물이다. 서사에서 그와 가문의 지속이 여인에 대한 적선 때문으로 설명되면서 행위에 보다 사회적 의미를 담게 된다.

음은 안타깝지만 “네 앞일에 화가 미칠지 염려되는구나. 하지만 그것이 너의 고의적인 죄는 아니다.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느냐”³⁹⁾라며 그 죽음의 책임에 선을 그었을 때, 아들 세대의 젊은이들은 이에 공감했다. 기성 세대의 말처럼 여인들을 잠시 위로해 주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한 것이다. 이처럼 젊고 촉망받는 선비들조차 타자가 받는 고통을 자신의 책임에서 분리시키고 스스로의 역량을 한계 지으면서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권선비 이야기>나 <민진원 이야기>는 가부장 사회의 주체가 책임을 회피할 뿐만 아니라 여인이 수절하거나 자결하는 상황도 그녀들의 책임임을 은근히 주입한다. 여인에게 수절을 강조하고 예법을 운운한 선비 이용목이 그 박정함으로 비난받고 변고를 당한 이야기처럼 서사에서 여인에게 규범을 강요한 이는 없다. 시비가 그녀를 돕고 부모나 심지어 시아버지조차 외간 남성과의 만남을 도와준다. 주변 사람들이 내게 애정을 갖고 나의 개개·일탈을 지지하고 있는 호의적인 상황에서 여인이 인간답게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의 미련이고 정리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선후기 청상이 된 여인들에게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책임지우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생각해보면, 주위의 호의적인 시선과 도움이야말로 환상일 뿐이고 과도한 걱정과 감시·폭력적인 시선 속에서 숨죽이던 여인들에게 지혜롭게 삶을 영위하라는 요구도 비정한 일이다.

이제 도덕적 불안 요소였던 여인이 사라졌으니, 그녀의 감사를 받은 선비들은 온전히 도덕적 주체로 거듭나고 세상은 조화롭게 유지되는가? 유교사회에서 선비는 도덕적 판단과 결정권을 지닌 주체이다. 사대부는 집안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였고 마을에서 공동의 일을 처리하며 징벌

39) 汝之來頭事必有其惡爲之極嘆也 然非汝故犯 豈有他慮 (『계암만록』 <민진원 이야기>)

을 결정하는 주체이기도 했다.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고 기존의 규범과 가치의 절대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주체의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도덕적 판단이 긴요해졌으며, 인간의 삶을 가로막는 질서를 바로잡는 데에도 역량을 발휘해야 했다.

<민진원 이야기>는 사대부 일화 형식으로 선비가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라는 당위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 선비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여인이 자결해 버렸지만, 존경받는 부친이 사건과의 거리를 명확히 확인해 주면서 긍정적이고 조화로운 세계를 유지하고자 했다. 그러나 민진원은 여인의 죽음에 경악하고 두려움을 느꼈고,⁴⁰⁾ 부친 역시 여인의 자결로 아들의 앞날에 화가 미칠지 몰라 염려할 정도였다. 여인의 죽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죄의식 혹은 꺼림칙함은 조화로운 세계에서도 끝내 해석되지 않는 모호함으로 남는다.

<권선비 이야기>에서 선비는 여인과 시부의 환대까지 받으니 문제될 것이 없어 보였다. 그는 여인을 만나 아내의 장례와 시부의 장례까지 치르는 등 적어도 3년 이상의 시간을 보냈기에, 그 과정에서 그녀에 대한 감정 역시 변하고 있다. 선비는 처음 여인을 유혹자로 흥미롭게 바라보았지만, 점차 여인의 상처입고 슬픈 감정을 포착해내어 그녀의 속내를 묻고 목소리를 듣게 된다. 여인의 자살 예고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죽지 말라고 여러 방편으로 설득하기에 이른다.⁴¹⁾ 하지만 여인은 권선비의 만류나

40) 卽席自刎 公見輒警愕莫知所爲且心中恐 『계암만록』 <민진원 이야기>

41) 권생의 시각 변화가 드러나는 표현은 다음과 같다. 밑줄 친 부분은 한문본에만 나온다. ‘권생이 바야흐로 마음이 愁亂하다가 또한 방해롭지 않은지라. 문을 밀고 들어가니 여자의 연광이 이십 사, 오세나 되고 素服이 정결하며 용모가 단정하고 언사가 娑容하여 <초면으로 대하매> [그와 더불어 말하되] 조금도 羞澁한 빛이 없는지라. …(중략) 그후 三喪을 지나매 [궤녀가 홀연 안색이 처참하거늘 생이 뜻에 자못 수상히 여겨 조용히 탐문하니]: 推門而入 見其婦人 年可二十四五歲 素服精潔 容貌端正 言辭舉止 雍容詳敏 與之言 少無羞澁之色 …(중략) 厥女忽顏色悽慘 權生

감정을 돌아보지 않고 자결해 버렸다. 자신을 포함하여 규범, 사회를 변화시키지 않고 모두에게 원망 받지 않을 정도로만 처신한 선비의 행위는 여인의 현실을 변화시키지 못했고 다만 죽음의 시간을 연장시켰을 뿐이었다. 친밀한 이를 상실하고 홀로 남은 선비는 보다 강렬하게 여인의 고통·원망에 공감하게 될 것이다.

조선 후기 천주교 신자들이 신앙생활에 열정적으로 활동하면서 혼인하지 않고 동정을 지키거나 때로 혼인한 부부가 동정부부를 선언하기도 하는 등⁴²⁾ 새로운 사상과 삶이 형성된 곳에서 남녀의 일이나 과부의 삶은 달라질 수 있었다. 결국 과부의 욕망을 욕욕으로 초점화하여 문제원인을 직시하기보다 위로와 애도를 표방하는 듯 책임을 회피한 이 이야기들은 사회구조적 변화의 요청을 읽지 못한 무기력한 지배층의 모습을 비추어낸다. 설화는 지배층의 시각으로 소외자의 고통을 위로하면서 시혜와 보은의 구조로 조화로운 질서를 그리는 듯했지만,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여인들의 자살을 맞아 가부장 주체의 이념과 현실, 감정 사이에 발생한 균열을 드러내며 그 도덕성에 의심의 여지를 남겼다.

4. 결론

본고는 『청구야담』 소재 <권선비 이야기>와 『계압만록』 소재 <민진원 이야기>가 당대 불우의 상징인 청상과부에 대한 주변인의 고민을 담았기에, 이들 설화를 중심으로 청상과부의 한을 포착하고 풀어주는 과정

意頗殊常 從容探問 …(중략) 權生不勝驚愕 萬段論釋 終不回心

42) 노용필, 「개화기 과부의 재가와 천주교」, 『한국사상사학』 vol.22, 2004.; 김윤성, 「조선 후기 천주교 여성들의 금욕적 실천; 음식 절제와 성적 절제를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제24집 1호, 2007 참고.

을 살펴보았다. 이야기는 청상과부의 성문제를 다루며 여인이 선비의 은혜에 감사하는 보은담의 구조를 보이는 듯해도 그녀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인물들의 상호관계가 단순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본론에서 여성 욕망에 대한 이해 방식, 시혜적인 관계맺음과 감정의 수렴이 갖는 의미, 도덕적 불안과 책임의 문제를 살폈다.

왕도정치를 표방한 조선시대 위정자들은 불쌍한 이들을 측은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돕는 행동을 현실적인 과제로 삼았는데, 가부장 사회의 성정치가 강화되면서 혼인하지 못한 여성은 소외자의 대표적인 사례로 인식되었으며, 조선후기에는 그들의 한이 야기한다는 액운, 전염병, 흉어, 가뭄 등에 대한 해원이 구체적으로 관습화될 정도였다. 화기를 상하게 하는 원녀들의 존재는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을 공동체에 경고하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데, <권선비 이야기>와 <민진원 이야기>는 조선후기 늘어만 가는 과부 특히 청상과부의 문제로 기득권이 느낀 도덕적 불안을 다루고 있었다.

이 두 설화에서 과부의 한을 해소하는 방법은 다른 설화 속 원녀들의 욕망 해결방안과 닮았다. 설화세계에서는 추녀, 병자, 시신으로 등장하는 여성들이 남성과의 성관계를 통해 생의 의지를 갖거나 매장되는 등 존재를 전환하였는데, 이러한 모티프는 여성에게 남성·성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편벽된 시각을 강화하기도 하지만, 여성의 다양한 사회적/정서적/육체적 욕망을 인지하고 해소하는 계기로 작동되었다. 그러나 청상과부의 경우 제도와 규범 때문에 여성적 삶이 가로막혀 있으므로, 원녀들과 달리 남성과의 성관계가 고통스러운 상황을 전환하여 인간적 삶을 보장하는 기제가 될 수 없었다. 그러다보니 위의 야담에서는 과부들의 욕망을 육체적인 쾌락의 문제로 축소하여 일방적이고 수월하게 그들의 한을 다루고자 했다. 청상이 자신의 욕망을 공론화 할 수 없는 사회에서 음양지

리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거나 쾌락이 지극하다는 담론은 여인들에게 폭력적인 환상으로 주입되었다.

대개 설화에서 여인의 한을 풀어주는 과정이 성관계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부부관계로 표현될 때에는 고통스러운 타자를 수평적으로 포용하는 덕의 실천이 될 수 있지만, 과부나 원녀에 이르면 남녀 간 행위가 수평적으로 그려지지 않는다. 다시 혼인할 수 없는 처지인 과부나 환관의 처, 추녀, 문동병 환자, 시신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일회적인 성관계도 충분한 시혜로 치켜세우며 남성을 생의 기운·성에 대한 앎·쾌락의 증여자로 해석한다. 결국 시혜적인 성관계 모티프는 사회와 규범 속에서 좌절된 이들의 한을 보듬는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사회적 갈등이나 부조리와 같은 근본 문제는 회피하면서도 증여구조를 통해 기존의 지배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향유층의 욕망을 담은 것이다.

그러나 <권선비 이야기>와 <민진원 이야기>는 지배층의 시각으로 소외자의 감정을 수렴하고 시혜와 보은의 구조로 조화로운 질서를 그리는 듯했지만,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여인들의 자살을 맞아 가부장 주체의 이념과 감정 사이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그 도덕성에 대해 의심의 여지를 남겼다.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고 기존의 규범과 가치의 절대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주체의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도덕적 판단이 긴요해진다. 본고에서 살핀 야담은 문제원인을 직시하기보다 위로와 애도를 표방하면서 책임을 회피한 인물들을 담담히 그려내면서 당대 사회구조적 변화의 요청을 읽지 못한 무기력한 지배층의 모습을 반추하게 하며, 소외자의 한과 감정을 구조화하는 문화 담론으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생각할 문제를 던지고 있다.

본고는 권선비·민진원 이야기와 시혜적 성관계 모티프에 주목하여 감정과 욕망을 구조화하는 방식 및 문제의식의 균열에 대해 살폈는데, 이는

조선후기 설화가 주목했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부장 주체 형성 문제와 보다 폭넓게 연계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과제로 삼겠다.

참고문헌

『경국대전』

『계서야담』, 유희수·이은숙 역주, 국학자료원, 2003.

『한국야담자료집성』(『계암만록』) 정명기 편, 계명문화사, 1987.

『국역 일성록』, 한국고전종합 DB

『승정원일기』, 한국고전종합 DB

『양은천미』, 정명기 역, 보고서, 2000.

『조선왕조실록』, 한국고전종합 DB

『천예록』, 정환국 역,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5.

『청구야담』 上下, 김정진 편저, 김동욱·정명기 역, 교문사, 1996.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92.

강성숙, [성(性) 정치(政治)로 본 상사뱀 설화-여성형 상사뱀 설화를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vol.39, 한국고전문학회, 2011, 161~194쪽.

강 인, 『여성의 배우자 사별 : 스트레스와 적응』, 내일을 여는 지식, 2006, 1~171쪽.

강진옥, 『원혼설화의 담론적 성격 연구』, 『고전문학연구』 vol.22, 한국고전문학회, 2002, 35~65쪽.

강진옥, 『육구형 원혼설화의 형성과정과 변모양상』, 『한국문화연구』 vol.4,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3, 7~47쪽.

곽정식, 『조선후기 문헌설화에서 살펴본 여성의烈과 性的의 문제』, 『인문학논총』 vol.11, No.1,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6, 25~48쪽.

권선경, 『여성원혼의 존재양상과 신격화의 의미-서울지역 호구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vol.6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4, 319~344쪽.

금장태, 『유교사상과 한국사회』,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87, 1~368쪽.

김기형, 『구비설화에 나타난 과부 형상과 의미』, 『한국민속학』 vol.26, No.1, 한국민속학회, 1994, 27~53쪽.

김상조, 『조선후기 야담에 나타난 재가의 양상과 의미』, 『한문학논집』 vol 4. 근역한문학회, 1986, 211~242쪽.

김영희, 『한국 구전서사 속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신경증 탐색-〈월경혈 문은 빗자루가 도깨비로 변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 Vol.25,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2, 45~89쪽.
- 김윤성, 『조선후기 천주교 여성들의 금욕적 실천 ; 음식 절제와 성적 절제를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제24집 1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07, 233~265쪽.
- 노용필, 『개화기 과부의 재가와 천주교』, 『한국사상사학』, vol.22, 한국사상사학회, 2004, 333~368쪽.
- 박성지, 『귀신의 형성조건에 대한 시론』, 『한국고전연구』 제23권, 한국고전연구학회, 2011, 33~65쪽.
- 박성지, 『조선 전·중기 조상신담론을 통해 본 사대부 주체 형성』, 『구비문학연구』 제35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12, 1~39쪽.
- 박재인, 『설화 <죽은 처녀 겁탈하고 복 받은 머슴> 속 시간(屍姦)과 발복(發福)의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 『겨레어문학』 제45집, 겨레어문학회, 2010, 37~64쪽.
- 소현숙, 『수절과 재가 사이에서-식민시기 과부담론』, 『한국사연구』 No.164, 한국사연구회, 2014, 59~89쪽.
- 신동훈, 『조선후기 야담에 나타난 재산과 신분의 관계 : 『청구야담』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vol.15,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4, 159~186쪽.
- 신동훈, 『삶을 일깨우는 옛이야기의 힘』, 우리교육, 2012, 1~388쪽.
- 이강옥, 『야담에 나타나는 여성 정욕의 실현과 서술 방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vol.16,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8, 175~217쪽.
- 이정우, 『개념-뿌리들』 01, 산해, 2008, 1~376쪽.
- 이형대, 『근대계몽기 과부에 대한 시적 표상과 매체적 인식』,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제 49차 동계학술대회 발표집』, 2016.1.
- 정성희, 『조선의 성풍속』, 가람기획, 1998, 1~352쪽.
- 정지영, 『조선후기 과부의 수절과 재혼』, 『고문서연구』, vol.18, No.1, 한국고문서학회, 2000, 1~30쪽.
- 정지영, 『조선시대 혼인장려책과 독신여성』, 『한국여성학』 제20권 3호, 한국여성학회, 2004, 5-37쪽.
- 최경석, 『생명윤리에서 법, 도덕 및 윤리의 역할과 한계』, 『법학논집』 Vol.15, No.4,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143~166쪽.
- 최기숙, 『불멸의 존재론, ‘한’의 생명력과 ‘귀신’의 음성학』, 『열상고전연구』 제16집, 열상고전연구회, 2002, 313~355쪽.

홍나래, 『간통 소재 설화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204쪽.

홍나래, 『‘첫날밤에 해산한 아내 용서하기’설화에 나타난 덕(德)의 의미와 그 수용 양상』, 『구비문학연구』 제33집, 한국구비문학회, 2011, 197~226쪽.

홍나래, 『희생명당 풍수설화에 나타난 구복(求福)행위의 의미와 결과에 대한 일고찰 - “사자생손형(死子生孫型)”, “유복자삼정승형(遺腹子三政丞型)”, “재취후손형(再娶後孫型)”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7집, 2013, 한국고전연구학회, 141~175쪽.

홍순민 『조선시대 궁녀의 위상』, 『역사비평』, 68권, 역사문제연구소, 2004, 241~267쪽.

모리스 고들리에, 『증여의 수수께끼』, 오창현 역, 문학동네, 2011, 1~350쪽.

주디스 버틀러, 『윤리적 폭력 비판』, 양효실 역, 인간사랑, 2013, 1~251쪽.

村山智順, 『조선의 귀신』, 김희경 역, 동문선, 1990, 1~472쪽.

ABSTRACT

A study of the structuralization of moral anxiety and emotions in the 'dispensation of sexual relationship (sexual intercourse with compassion)' motif of Korean folktales.

Hong, Na-rae

As reinforcing patriarchal gender politics in late Joseon Dynasty, a single woman who can't marriage is the typical symbol of a miserable person. People believe a single woman harbors a grudge and it causes plague and drought, or a poor catch of fish and so on. The presence of these women warns the situation that the community does not guarantee the basic rights of human beings. So the main agent of the society always concerns about it.

In this thesis, I have studied the 'dispensation of sexual relationship'(the man has sex with a widow for compassion) themed narrative focusing on two stories which had formed in late Joseon Dynasty, containing a young widow character who has no sexual experience. Though these stories, I pay attention to the narrative structure how it accepts women's desire and how it makes the gift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woman.

In the Korean folk narrative, sexual relationship can be an essential mechanism which poor women overcome her situation. But in the case of young widow, their remarriage was prohibited by the system and norms, so even in these stories sexual intercourse motif could not change their life dramatically. On the other side the characters in these stories claim that sexual intercourse and sexual pleasure are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life, consequently these stories interpret the young widow's desire to sexual stuff only. As the stories arranged the widow's emotion simply, it is easy to handle her resentment. The man who has sexual relationship

with this young widow was valued as a donator who gives her sexual knowledge and pleasure. The narrative transmission group intended to eliminate the moral anxiety easily even structuralize the gift relationship system, disregarding the social responsibility.

But these stories was concluded the widow's suicide, this point ruminates on the purpose of the menfolk and doubts their morality. It is instructed that the leadership class of late Joseon Dynasty was powerless to change the society but aggressive to make a ruling discourses. This kind of narrative are also full of suggestions to understand the contemporary cultural discourse.

Key Words dispensation of sexual relationship, female desire, gift relationship, moral anxiety, patriarchal gender politics, widow

논문투고일 : 2016.04.15
심사완료일 : 2016.04.30
게재확정일 : 2016.05.08